

여름, 어둠, 으르렁거리기

정소영

또는 낮은 톤으로 성대를 굽어 짐승의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는 창법

0.

그로울링 워크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앨런 긴즈버그의 시집 『울부짖음 그리고 또 다른 시들 Howl and other poems』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으르렁거리는 것(그로울링)과 울부짖는 것(하울링)은 조금 다른데도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 걸 보면 아마도 내게 그로울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한 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워크샵이 끝난 지금 다시 이 시집을 펼쳤더니 어떤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이게 내가 이번 여름,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에 꽤나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 여기 적어 둔다.

“모든 증거들로 보건대 그는 말 그대로 지옥을 지나온 듯하다. 도중에 칼 솔로몬이라는 자를 만났고, 삶의 이빨과 배설물들 한가운데서 그가 사용한 어휘가 아니라면 결코 묘사할 수 없었을 무언가를 공유했다. 그것은 패배의 울부짖음이다. 하지만 결코 패배가 아닌 것은, 그가 그것을 평범한 경험, 사소한 경험처럼 통과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둠을 뒤흔들던 소리들은 언어화될 수 없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그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설명해보려

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잘 되지 않음으로써 그 무언가의 충동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으르렁거림을 듣던 으스스함을 온전히 옮겨 놓을 수는 없어서 독자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그 그로울링 하는 법을 상세히 적고자 한다.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8월 8일 (1/5)

비가 온다. 월요일은 휴관일. 이걸 미술관의 규칙이다. 나는 규칙 바깥에 있으므로 우산을 접고 미술관 문을 열고 들어간다. 나는 그 그로울링 워크샵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워크샵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그로울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나는 으르렁거린 적이 없다(아마도). 으르렁거리고 싶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다. 기억을 충동원해 그로울링 근처에 뭔가 놓아 보려고 애 쓴다. 앨런 긴즈버그의 『울부짖음 그리고 또 다른 시들Howl and other poems』,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The sound and the fury』 등이 떠오른다. 둘 다 이성에 따라 정돈된 텍스트가 아닌 충동에서 흘러나오는 듯 분노와 절망 어린 텍스트였다……. 그로울링을 배우고 익힌다는 게 무엇인지 상상이 잘 안 된다. 속에서 치밀어오르는 걸 어떻게 뺀는 것인지. 나는 꽤나 충동적이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그걸 참느라 몸이 근질거릴 때도 있지만, 그 근질거림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몸부림을 치는 인간은 시선을 끌기 마

런이므로 자리에 단정하게 앉은 채 구글에 growling을 검색한 뒤 이미지를 본다. 곰, 호랑이, 개(개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이빨을 위아래로 모두 드러내고 있다. 위협할 때 또는 장난스레 내는 소리, 그런 설명도 적혀 있다. 언젠가 친구는 조금 억울해 하며 내게 말한 적 있다. 사람들이 내가 도베르만이고 내가 시츄인 줄 안다고. 사실 내가 도베르만이고 내가 시츄인데. 어쩌면 나도 으르렁거린 적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나는 때때로 위협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도베르만처럼 보이고 싶다. 위크샵 소개글엔 “삼키지 말고 뺨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지. 어떤 사람들이 올지 궁금하다.

미술관 출입구 옆에 있는 방에 사다리꼴 모양의 책상 7개가, 책상 위에는 초성이 적힌 종이가 수수께끼처럼 놓여 있다. 낮선 사람들이 하나 둘 도착한다. 성별과 연령이 다양하지만, 모두 성인이다. 조심스럽고 예의바르다. 으르렁거리는 방법을 알기 위해 여기 왔을 텐데, 으르렁거릴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친구는 말했었지... “사실 내가 도베르만이고 내가 시츄인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초성을 찾아 그 앞에 앉는다. 미술관은 적막하고 우리는 서로를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낮선 소리를 내 보려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

이름의 초성을, 그러니까 이름의 일부를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누군가가 지어 준 이름이 아닌, 스스로가 붙인 이름으로 인사를 나눈다. 이 워크숍을 기획한 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사전 단계로, 오늘까지만 이렇게 밝은 곳에서 만나고 앞으로는 어두운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한다. (바로 소리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마음이 놓인다...) 본격적으로 소리를 뱉기 전에, 삼켜 왔던 소리를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책상 위에 종이가 놓인다. 공기를 매질로 진동을 전달하듯이, 종이 위에 펜으로 소리를 꺼내 전달해 보기로 한다. 5초 동안, 한 호흡의 소리를 펜 끝으로 쓴다. 5초가 끝나면 다시 10초. 오래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듯이. 끼익거리는 펜과 종이의 마찰음이,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운다. 각자 종이를 들어 서로에게 보여 준다. 5초 동안에는 문자에 가까웠던 소리의 모양이 10초가 되자 이미지에 가깝게 변한다. 잔잔한 파도같은 모양, 폭발하는 형태, 화살표, 팽창하는 형태 등.

이제 1분 동안 소리를 쓴다. 가장 크게 소리내 본 기억을 떠올린다. 아니면 크게 소리 지르고 싶었던 언젠가를. 그 기억을 가지고 1분 짜리 악보를 그린다. 크기와 간격이 리듬이 되고, 펜이 성대가 된다. 펜의 진동으로 손을 소리와 연결시킨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리를 꺼내 놓고 있는데, 공간은 고요하다. 나는 사람들의 손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관찰한다. 사람들의 손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펜을 쥐고 있지 않은 다른 손을 자신의 성대 위에 올려놓은 사람도 있다. 1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신이 쓴 소리가 낮설다는 듯이 지켜본다. 종이 위의 선과 점 들은 매끄럽기도 하고, 먹구름 같기도 하고, 파편적이기도 하고, 안절부절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각자 자신이 쓴 소리를 듣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나눈다. 대부분 답답한 상황에서 소리를 질렀거나, 지르고 싶었던 적이 많다. 직장 생활 도중에, 또는 엄마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다가, 또는 말다툼 중에 상대는 너무나 유려하게 말하는데 내 말은 푹 푹 끊어지기만 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등등. 그러나 누군가는 20년 전, 1종 운전면허 시험에 서른 번 가랑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마침내 붙었을 때를 떠올린다. 너무 기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쓸 새도 없이 소리를 질렀던 아주 오래 전. 그리고보니 사람들은 기쁠 때도 소리를 지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다함께 방을 나선다. 봉투를 하나씩 들고.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장소, 상황, 조건이 적힌 카드가 들어 있다. 텅 빈 미술관의 닫힌 전시실 문 앞에 모여 있는데, 운전면허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내게 다가와 영화 ‘박물관이 살아 있다’가 생각난다며 즐거워한다. 우리는 관람객이 아무도 없는 전시실로 들어간다. 《조각 충동》 전시 중이다. 우리는 조각들과 남겨져, 그 사이를 걸으며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소리낼 때 편안한지 봉투 안의 단어들을 펼쳐 놓는다.

전시장 곳곳에 단어가 놓인다. 나는 천장까지 이어진 조각물 앞에 방사형으로 놓인 단어들, 벽에 가지런히 놓인 단어들, 조각 둘레를 감싸고 있는 단어들을 본다. 전시장을 거닐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들린다. 조각난 말들을 받아 적는다.

소리라는 게 저한테는 식물이 뒤엉키며 자라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소리 지를 때 누군가 박수를 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초 이상 소리 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서 안 하더라고요, 비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했어요. 제가 아까 그런 소리가 이 조각의 꼬불거림과 닮았어요. 이 조각이 숲처럼 보여서, 저는 바다보다는 숲에서 소리지르고 싶어서 이 앞에 뒀어요. 무대 위에서 이불로 나를 감싼 채 소리 지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태풍치는 날은 빼고 싶어요.

북서울 미술관 2층에는 유리 통창 앞을 지나치게 되는 긴 통로가 있는데, 전시장을 나온 우리는 그 통로에 나란히 앉아 바깥을 본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인적이 드물어 한산하다. 가끔씩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미술관 앞을 가로지른다. 각자 자기 앞에 놓인 풍경을 마주하고 내가 지르고 싶은 소리를, 소리 지를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해 본다. 누군가는 비밀 보장만 된다면, 내가 지른 소리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면 맘껏 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서로의 소리를 존중하는 공간이라면 가능하다고. 누군가는 상상한 소리로부터 어릴 때 대형 선풍기 앞에서 질렸던 기억 속의 소리를

떠올리고, 태풍 치는 날 빗속에서 친구들과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던 장면까지 떠올린다. 그렇게 뛰어다니고 실내에 들어오면 바닥엔 우리의 젖은 발자국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어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다 보면, 마들렌이 풀어진 홍차 한 모금으로부터 주인공이 잊고 있던 한 시절이 형체와 견고함을 가지고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 유명한 장면으로부터 프루스트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 냄새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되살려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워크숍을 마치고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른 바닥에 남은 축축한 발자국이 어쩐지 생생했다.

2. 8월 16일 (2/5)

오늘은 미술관의 지하 공간으로 간다. 미술관에선 《서도호와 아이들: 아트랜드》 전시가 한창이다. 어린이들이 색색의 점토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나는 밝고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한 공간을 지나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있다.

최원겸(이하 c)과 장정우(이하 j로 표시하겠다). 두 사람이 차례로 자기 소개를 한다. c: 구토와 눈물의 보컬로, 11년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조금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으로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j: 이곳저곳에서 적극적으로 소음을 만들지만, 그로울링은 일상에

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그로울링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에게 실제 그로울링 창법을 이용한 음악들, 그리고 쓰룻 싱잉 등을 들려준다. 쓰룻 싱잉은 낮은 음과 높은 음을 한번에 내는 배음 창법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목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을 놀라운 마음으로 보고 또 듣는다. 사람들은 기대와 걱정으로 웅성거린다.

이렇게 소리 내고 나면 목이 나가지 않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최대한 목이 나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공연하면서 한 시간 넘게 노래할 때도 있지만 괜찮다,고 c가 말하자 좌중의 탄성이 들린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면 괜찮아요... .사람들의 걱정을 잠재우려는 듯 c와 j가 말을 잇는다. 목이 아프거나 따끔거린 적은 없어요, 아프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로울링은 사람들이 평소 쓰는 목소리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괜찮아요. 혹시 여기에 메탈 밴드 하고 싶은 분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사실 이 소리를 배우는 게 무슨 효용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하는 것을 내가 해본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또는 그로울링을 배워서 공공장소에서 친구들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로울링이라는 창법과 멀어 보이는 장소인 미술관에서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효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몸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몸에 내장되어 있던, 숨겨진 기능

을 쓰는 법을 새로 배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로울링은 바깥에서 보기엔 악 쓰는 것처럼 보여도 섬세한 창법이에요. 가슴에서 시작한 소리를, 목구멍을 조금씩 열며 꺼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려 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로울링의 스펙트럼이 무척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이 안 아플 정도로 하면 됩니다. 본인 목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마해야 해요.

너무나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궁금한 걸 묻는다. 연습할 때 안 무섭나요?

c : 불편하다, 메스껍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으나 무섭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고 저 스스로도 느껴본 적 없습니다. 연습하면 사실 좀 웃겨요.

입은 크게 벌려야 하나요?

c :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에 따라 크게 벌릴 수도 있고 작게 오므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가사 전달력이 떨어지는 창법이에요. 가사가 다 있긴 하지만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사에 입모양을 맞추기 보다는 본인이 내고 싶은 소리에 따라 입 모양을 바꿔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로울링은 목에서 특정한 부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가면 됩니다. 상황과 기법에 따

라 다 다른데, 말로만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윗배와 명치 언저리에서 공기를 밀어내면서 쇄골 사이 쪽에서 소리를 내보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깊은 한숨 쉴 때 목 끄트머리에 걸리는 소리, 들으라는 듯이 헛기침할 때 나는 소리를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하면 숨이 금방 바닥나거든요. 알뜰살뜰한 마음으로 호흡을 계산해가면서 아껴서 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과 팁을 전수받은 뒤 함께 스트레칭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로울링을 시도하려면, 시작 전에 스트레칭하기를 바란다. c의 말을 옮기자면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도 풀리고, 공연 중에 쥐가 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그것과 별개로 스트레칭은 언제나 좋은 것이지요.” 몸을 푼 뒤 각자가 원하는 자리로 간다. 공간 곳곳에는 주저함을 없애주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폭신한 카페트, 파티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둠.

사람들은 우선 들은 것을 바탕으로 20분간 그로울링을 시도해 본다. 조금 어색해하고 해매는 듯하지만,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문명 밖으로 나가는 느낌, 다들 어슬렁거리며 소리를 내니 짐승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든다. 누군가는 영화 레버넌트에서 디카프리오와 곰이 싸우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하고, 어릴 때 토하면서 울던 기억을 떠올렸더니 소리가 어떤 길을 통해 나오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한다.

자신을 잊거나 버려야 할 것 같은데 부끄럽고 긴장되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맞게 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헛갈려요.

사람들이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던 c가 말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20분 해 본 건데, 바로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다니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되면 저희가 해온 게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다음주까지,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수건을 돌 돌 말아서 입을 막고 하거나 프링글스 통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 2-3개 뚫어서 거기에 입을 대고 연습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틈틈이 연습해 오시고, 또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가사를 써 오셔야 하는데요. 길 필요는 없고 짧게 한두 줄 이라도, 그냥 단어라도, 반복하면 되니까 적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가사를 써오라고 하나면요, 그로울링은 기분과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로울링할 기분이 잘 안 날거예요. 그렇다고 반인륜적인 가사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평소 큰 소리로 하기 힘들었던 나쁜 이야기를 이렇게 깔끔한 미술관 안에서 질러볼 수 있는 경험을 위한 거니까 다음주까지 가사 적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 드린 플레이 리스트는 공유해드릴게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데스메탈 검색하고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참고하시면 도

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웃는다. 선생님 밴드 이름이 뭐였죠?

구토와 눈물입니다. 토하고 울고.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런 이름을...?

사실 제가 지은 건 아니예요. 제가 주장했던 밴드명은 가족 여행이 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리둥절했던 시간이 지나고, 워크숍 두 번째 시간이 끝났다. 사람들은 끝나고도 계속, 조금씩 으르렁거리면서 자리를 정리했다.

3. 8월 22일 (3/5)

프로젝트 갤러리1. 높은 천장 아래. 작품이 사라진 전시실에서.

c : 이렇게 소리가 잘 울리는 좋은 연습 공간을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내가 낸 소리가 멋지게 들릴 수 있는 조건의 공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1:1로 마크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해온 가사로 연습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연습해보니 어떠셨어요?

(이하 그로울링 워크샵 멤버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표시)

익명 : 지난 주에 해 보면서 이런 건가? 하고 감을 잡은 것 같아서 설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다시 해보니까 잘 안 됐어요. 중간중간 생각 날 때마다 긴 숨을 쉬듯 연습해 보기도 하고, 자기 전에 베개에 대고 으르렁거리 보기도 했는데, 혀가 R 발음 할 때처럼 자꾸 동그랗게 말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익명 : 연습은 안 했어요. 지난 주에 보여주신 쓰룻 싱잉 영상이 신기해서 많이 찾아보면서 듣고, 내가 그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보는 이미지 트레이닝 시간을 가졌어요. 그 뒤로 성대의 울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또 의식하게 됐습니다.

익명 : 처음 해봐서 그런지 할 때 배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순간 힘이 안 들어갈 때 소리가 잘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익명 : 선생님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자꾸 더 크게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가 점점 커져요. 목의 어디에서 숨이 걸처지는지 찾아보며 연습하고 있어요.

c : 어렸을 때 풀피리 불던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쥐어짜는 게 아니라 목에서 한숨을 조금 세게, 조금 길게 내쉬되, 숨의 통로를 조절하면서 내 보는 게 중요해요. 빨대로 음료 마실 때 끝을 살짝 물고 숨을 내쉬어서 음료수가 부르르 진동하게 만드는 장난을 칠 때처럼요.

익명 : 저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고양이를 핑계로 아르르르하며 재개발 골목길을 비집고 다녔는데, 평소 제가 내는 소리와 소리의 길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서 연습했거든요. 지난 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길에서 양산 쓰고 숙소 가는

길에 마스크 쓴 걸 핑계로 소리를 내고 다녔더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에서 경찰과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 그로울링을 배워서 그런지 경찰을 향해 으르렁거릴 뻔 했어요.

c : 공권력을 향한 분노, 아주 오래된 주제죠! 이미 그로울링의 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익명 : 매일 10초 미만이지만, 빠지지 않고 조금씩 연습했어요. 아직 깨달은 점은 없습니다.

회고를 나눈 뒤 연습을 시작한다. 전시실의 조명이 모두 꺼진다. 비상구를 알리는 조명 두 개. 그리고 아주 작은 조명 한 개. 이렇게 세 개만 남기고 모든 불이 꺼진다. 사람들이 모두 그림자처럼 보이고 누가 누군지 식별할 수 없다. 사람들의 앞뒤가 구분되지 않는다.

공간 자체에서 오는 울림 효과 때문에, 어둠 덕에 소리가 적극적으로 울린다. 으, 아으, 억, 이런 소리들이 메아리친다. 늑대인간들이 변신하는 밤 같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를 위협하는 것 같기도, 아니면 그냥 어둠과 대화하는 것 같기도, 어쩌면 수련 중인 것 같기도 하다. 공간 곳곳에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조율할 때처럼 조금씩 소리들이 나타나고 만나서 상승하고 잡아들기를 반복한다.

c와 j는 어둠 속을 돌아다니며 소리의 근원지를 들여다본다.

j :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개가 킁킁 짖는 것처럼 한숨을 크게

내쉬다 보면 숨이 모자라지면서 숨의 끝자락에, 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듯이. 숨이 목을 지나쳐 간다는 느낌으로, 바이올린 쉼 때 활을 세계 문지르면 너무 날카로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말고 스쳐지나가듯이, 통과하듯이 그로울링해 보세요.

c : 언어가 없다면, 성조가 없다면, 우리가 쓰지 않던 목의 어떤 부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겁을 주거나 위험을 알려야할 때 어떤 소리를 낼지 상상해 보세요.

어둠에 눈이 익자 사람들의 자세 정도는 식별할 수 있는데, 어둠 속에서도 파티션 뒤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간에 놓인 원형 소파 위에 누워 소리를 내는 사람도, 공간의 벽 모서리에서 벽과 싸우듯이 벽에 손을 대고 소리내는 사람도, 바닥에 깔아 놓은 요가 매트 위에 누워 배에 손을 얹고 소리내는 사람도 있다.

쉬는 시간에 닫혀 있던 전시실의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다른 공간으로 변한다. 이 워크샵을 통해 잊고 있던 시절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되찾는 중인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말한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현관 앞에 누워서 울던 게 생각나서 누워서 소리내 봤어요. 그러다보니 거의 삼십년 전에 제가 회식할 때 나이트클럽 갔던 것까지 떠오르더라고요. 회사 사람들 다 춤추고 노는데 전 혼자 춤 안 추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때도 전 엄청 소리가 지르고 싶었나 봐요.

다시 시작한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비밀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드소마에 나오는 공동체에 초대받은 느낌. 그리고 그로울링 소리에 온도가 있다면 생각 외로 뜨거움보다는 차가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곳곳에서 발생한 냉기 같은 소리들이 이리저리 부딪치며 올라가 천장 즈음에서 안개처럼 감돌고 있는 것 같다.

c와 j는 여전히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듣고 조언하고 있다. 목에 가는 부담을 입 부근에서 쇠골 부근으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 보세요. 힘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문을 연다는 느낌으로. 짧게 짧게 단 말마로 뿜어 보는 연습도 도움이 돼요. c는 자기 목에 휴지 한 장을 대고 그로울링 시범을 보인다. 휴지가 파르르 떨어진다.

c : 시냇물이 흘러갈 때 조약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물결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공기를 시냇물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내 보세요.

사람들은 그로울링 도중, 어둠 속의 서로에게 조언을 하기도 한다. 목이 없다고 생각해. 3살이라고 생각하고, 3살인 상태로 운다고 생각해.

워크숍이 끝나고 소감을 나눈다.

익명 :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익명 : 저는 아까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린 시절 이후로 소리내어 읊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흘렀는데, 남들이 내가 우는 걸 알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랑, 한편으론 뭐 어때 싶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소리가 나와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익명 : 저는 진화생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박물관에 가면 펜석기 같은 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도구 말고 아주 오래 전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았는지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 소리내면서 저기서 짐승이 쫓아온다, 맹수에게 내 새끼를 잃었다, 이렇게 상상했더니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아요.

익명 : 다른 분들이 주저 없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 주셔서 저도 용기내서 다양하고 큰 소리를 내볼 수 있었어요. 동시다발적인 소리 실험들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런 무언의 흐름과 제스처가 신기했고 해방감을 느꼈어요.

j :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괜히 이 닦다가 헛구역질하는 척 연습하고, 기침하는 척 연습하고, 가글하는 척 연습하고 해 보세요. 아직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도, 발성이라기보다 그냥 또 다른 호흡법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 오늘 다들 즐거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가능성을 탐구하고 몸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느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소리를 내 보는 건 공간을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많이 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주에도 울려 퍼지는 소리에 더욱 즐거우시리라 예상합니다. 오늘까지는 소리를 내 보는데 집중했다면, 다음주에는 박자와 반주

가 생길 거예요. 가사를 준비해 오시면, 또는 짧게라도 이야기를 준비해 오시면, 하고 싶은 말 무엇이든, 제약 없이 가져오셔서 그로울링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 8월 29일 (4/5)

오늘의 새로운 얼굴, 김윤기(이하 k). 신디사이저 2개와 드럼머신 1개를 가져왔다. 43 bpm 정도의 단순하고 조금 느린 리듬으로 연주할 예정.

k : 창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소리하는 사람, 저는 북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주할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지 생각하면서 연주할게요. 드럼 역할, 베이스 역할, 기타 역할.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을 잘 조합해서 반주하겠습니다.

c : 지난 주에 각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리를 내봤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되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틈틈이 돌아가면서 원하는 때에 마이크를 들고 그로울링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는 공간 자체가 울림이 잘 되는 곳이었지만 여기는 카펫과 커튼이 있어서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빛을 줄인다. 불이 꺼진다.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를 찾아 이동한다. 어둡고 깊은 숲에서 있는 나무들처럼 사람들이 약간의 거

리를 두고 서 있다.

음악과 함께 사람들이 조금씩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며, 누군가가 마이크를 줬다. 저마다의 으르렁거림 중 가장 큰 으르렁거림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다. 마이크를 줬 사람은 체구가 작다.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는 않는다. 음산한데 힘이 느껴지는 소리. 자글자글한 낮은 소리 위에 천천히 깔리는 드럼 소리, 그 위에 높고 날카로운 그로울링 등 여러가지 소리가 공간에 쌓인다. 음악이 고조될수록 그로울링도 고조되는데, 함께 상승한 소리가 부딪히는 정점의 순간에는 그 누군가의 입과 발만 남은 느낌이 든다. 뿌리내린 발바닥으로 바닥에서부터 목까지, 엄청 깊은 곳에서 끌려 나오는 소리. 한 사람이 마이크를 내려 놓으면 다음 사람이 마이크를 넘겨 받는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릴레이 그로울링. 점점 누가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내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마이크를 들지 않은 사람들도 덤불처럼 드문드문 앉아 어둠과 음악을 몸에 두르고 으르렁거린다. 차분한 덤불, 슬픈 덤불, 화난 덤불, 조심스러운 덤불,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록 화가 나버린 덤불, 이파리를 흔드는 덤불... 일정하게 긴 소리를 내는 사람도, 짧게 짧게 소리를 끊어 내는 사람도 있다. 서로 마이크를 넘겨주고 넘겨 받으며 그로울링을 반복한다. 다들 평소 자신에게서 나올 것 같지 않은 소리를 꺼내는 중이다. c는 마이크를 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옆에 서서 주의 깊게 소리를 듣고, k는 그때 그때 다르게 연주하며 각자의 그로울링에 음악을 맞춰나간다. 음악과 그로울링이 대화하는 것 같다. 음악이 먼저 커지면,

그로울링도 화답하듯 커진다. 준비해온 가사에 그로울링을 더해
해 보는 참여자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다.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이 외우는 주문 같기도.

쉬는 시간. 누군가 내게 다가와 소리를 안 내는 입장에서 들으면 되
게 듣기 싫지 않냐고 물어본다. 아니요. 본인은 어떠세요? 물으니,
마이크로 소리 내 보니까 오히려 내가 내고 있는 소리에 신경을 안
쓰게 되던데요.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
답이 돌아왔다.

다시 불이 꺼진다. 천장에 붙은 녹색불만 깜박이고 있다. 다시 으르
렁거리는 어둠 속 시간이 흐르고, 헤어지기 직전에 이야기를 나눈
다.

c : 마이크 대고 그로울링 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익명 : 마이크가 있으니까 소리내는 게 부담이 떨어져서 좋았어요

c : 목에 힘을 덜 줘도 돼죠

익명 : 음악에, 리듬에 맞춰서 해 본 게 좋았어요.

익명 : 올 때마다 느끼는데... 그로울링을 내뱉으려고 모이는 이 모
임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좋아요. 다른 분들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져요.

익명 : 원시... 원시의 모임.

익명 : 그로울링 워크샵이 다른 데서도 열리나요?

c : 저는 처음이에요.

익명 : 그럼 우리 이 워크숍 심화과정도 만들어서 더 연습해요. 서울 거리 예술제에 다같이 나가요.

익명 : 전 진짜 지난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요. 마스크 쓰고 내니까 제가 내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대놓고 내도 (제가 그런 소리 낼 것처럼 안 생겼으니) 쳐다보면서도 막상 제가 낸 소리라고 생각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낮에 양산 쓰고 (주변에 누가 있든 말든) ‘여기 아무도 없고, 내가 소리 내도 아무한테도 안들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소리를 내니까 재미있었어요. 이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놀래켜줘야지,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에서 나는 소리가 있구나 싶어서…. 마지막엔 저 말하면서 했는데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쌓여 있던 말을 했는데, 정치 좀 제대로 하라고.

c :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짐과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반주에 좀 묻히기도 하고 마이크가 증폭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덜고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익명 : 저는 퍼포먼스 작업하는데 이번에 배운 걸 바탕으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 : 집중이 잘 됐어요. 두 시간이 금방 가네요. 가끔은, 좋은 의미로 무서웠어요. 재미있었습니다.

5. 9월 5일 (5/5)

태풍 힌남노 영향권. 그로울링 워크샵의 마지막 날.

시작 전에 나는 이야기들.

익명 : 증독성이 있어요. 제가 20대에 그로울링을 만났다면 이 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소리를 내는 데에만 신경썼는데, 이젠 자연스럽게 나와요

c : 신이 나는 이야기네요. 워크숍 끝난 뒤에도 계속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아프고 고음이 잘 나오지 않는 건 꾸준히 연습하면 차차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익명 : 지난 일주일간 일부러 소리 지를 수 있는 곳들 찾아 다녔어요. 밤 늦게 청계천 자동차 도로를 걸으면서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라 흥이 나서 더 크게 소리 내는 바람에 오늘은 목이 좀 아파요

c :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내다가 다칠 수 있어요. 저는 저번에도 한 번 말했지만, 보통 수건 같은 걸 둘둘 감아 입에 물고 소리 내면서 연습해요.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거기에 머리 넣은 다음에 연습할 때도 있어요. 물속에서 노래하면 소리 내뿜을 때 눈에 그 소리가 보이면서도 막혀서 물 바깥까지 크게 들리지는 않으니까 연습하기 좋아요.

다시 공간의 분위기가 바뀐다. 불이 모두 꺼진다. 디제잉을 위한 불빛과 비상구 불빛만 켜져 있다. 적막을 찢는 큰 음악소리. 그로울링

이 시작된다. 지난 시간처럼 자유롭게. 각자의 페이스대로.

여전히 어둠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두서없이 적는다. 위협하는 소리, 굵고 낮은 그로울링. 그 다음엔 음과 가사가 있는 듯한, 그러나 무슨 말인지는 식별되지 않는. 종교적인 아니면 수련하는 느낌이 드는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의 그로울링, 리듬감 있는 그로울링, 음악이 고조되면서 그로울링도 크고 빨라지다가 함께 잦아드는. 누군가가 소리낼 때 c가 옆에서 소리내는 모습을 들여다 보는 중. 천천히 소리의 근원지를 더듬어가듯 몸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반복하는. 두 발로 리듬을 맞추는 사람. 악마가 깨어나는 것 같은 소리, 수그린 몸, 포효하는 소리, 멀리서 출발한 소리. 서서히 다시 가까워지는.

나는 소리내지 않고 있는데도 몸이 공간에 녹아 흠어진 것처럼 살살이 진동하는 느낌이다. 사람들의 그로울링이 이전보다 훨씬 다채롭고 변화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그로울링하는 동안 촬영하고, 쉬는 시간에 머리를 맞댄 채 함께 소리를 들어본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마지막 날을 그냥 끝내지 않겠다는 듯 미친듯이 달리는 그로울링 레이스. 누군가 빠른 반주를 요청한듯 음악이 점점 빠르고 높아지며 날카로워진다. 낮고 힘있는 그로울링이 시작된다. 다들 리듬을 타고 있다. 오늘은 공간을 채우는 소리의 힘이 더 세다. 나는 바위같이 생긴 빈 백 뒤에 앉아 듣고 있는 것을 받아 적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 일제히 일어서서 몸을 흔들

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순간 내가 뭘 하러 여기 왔던 건지 헷갈린다. 서 있는 사람들은 작은 나무 같다. 어둠이 찾아왔으므로 거리낌 없이 살아나 몸을 흔들거리는 기묘한 나무들. 그런 충동과 진동을 몰래 지켜보는 심정으로 이것을 쓴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며 몸에서 끌어올려지는 소리들, 굽게 포효하는 소리 뒤에 따라오는 날카로운 금속성의 반주. 각자 자기 안에 내재된 소리로 끌려 오고 끌고 가고 한다. 쏟아지는 소리에 압도되어 가만히 맞고 있다보니 이 기묘한 어둠이 끝난다. 반주가 잦아들고, 한동안은 모두가 박수를 친다.

c :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어색하네요. 5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들 너무 잘 하셔서 놀랐어요.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장족의 발전을 보여 주셨어요. 오늘 너무 잘 해주셔서, 이전까지는 아마 이런 소리를 내 볼 일이 없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익명 : 평소에 이런 짐승 소리를 낼 일이 없는데, 미술관에서, 그것도 아무도 못 들어오는 휴관일의 미술관에서 짐승 소리를 내 보는 게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익명 : 미술관도 아마 이런 소리는 처음일 것 같아요.

익명 : 저는 집에서 혼자일 때나 차 타고 돌아다닐 때 꾸준히 연습했는데요. 처음엔 그러고 있는 스스로가 웃겼는데, 나중에는 한 번씩 그렇게 굽어 줘야 속이 시원했어요. 꼭 단위로 일정한 소리를 내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앞으로 그로울링 창법을 이용해서 작업해 보고 싶어요.

익명 : 전 오늘 팝송 가사 생각나는 것 아무거나 그로울링하다가... 오늘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하니까 그쳐라, 그쳐라, 그런 가사로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또 입을 많이 벌리면 소리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아스트, 아스트, 이런 소리도 내 봤어요. 앞에 나온 이야기처럼, 저도 시원했어요. 등 굽는 느낌처럼. 가려운 곳 긁는 느낌.

익명 : 저는 처음에 선생님 목소리 듣고 되게 충격 받았거든요. 어떻게 인간에게서 저런 소리가 날까. 원시시대 때 서로 저런 소리를 냈을까 싶고. 선생님이 오늘 소리를 낼 때 공연장에 온 것 같았어요. 나는 그만큼 소리내지는 못하지만 그 소리에 내 감정을 실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소에 사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 주다가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이한테 되게 충격이었는지 아직도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감정을 잘 안 드러냈는데 여기 와서 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헤비메탈을 싫어하고 왜 듣는지 몰랐는데 이걸 계기로 헤비메탈을 좋아하게 됐어요. 전에 고음을 좋아했는데 저음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오래 기억하고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익명 :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미술관에서, 마법진 같은... 검은 양이나, 무슨 머리카락도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저는 이렇게 마음껏 소리를 내 보면서 해방감도 느끼고, 이런 날 것의 소리가 테크니컬하다는 것, 매우 정제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울링이 예술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저를 표현하는 것 중 하나로 사용할 거예요.

c : 오늘 참관오신 j 님도 우렁차게 해 주셨어요.

j : 전 그로울링을 접해본 적은 있지만 제가 해본 건 처음이에요. 전에 공연장에서 구토와 눈물을 보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일정 노이즈를 제 작업에 사용하면서도 목소리로 내 본 적은 없었어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오늘도 여기 와서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하는 걸 들어보니 어, 이거 안 하면 손해겠는데 싶어서 했어요. 막상 해보니 건강에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혈액 순환이 짝 되는 느낌.

익명 : 맞아요. 저도 예전보다 호흡이 엄청 많이 길어졌어요. 소리도 커지고요. 제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거기서도 예전엔 기합 소리 작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젠 기합 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세 배는 커진 것 같아요.

익명 : 그로울링 워크숍을 기획한 입장에서, 저에게도 그로울링은 생소한 거였는데요. 처음엔 기획자 세 명 중 제가 가장 우려를 많이 했어요. 미술관에서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됐는데, 다

른 두 분에게 레퍼런스를 받고서는 그로울링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만나니까 제가 했던 걱정이 모두 사라졌고요. 다들 한분 한분 스스로에게 몰입하고, 거리낌 없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이 현장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동받고 정말 기뻐요.

익명 : 저는 음악 전공은 아니에요. 제가 흥미를 가졌던 부분은 평소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는 경험과 용기예요.

혼자면 어려웠을 수 있는데 함께하면서 분위기가 생성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익명 : 각자 소리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기묘한 모임에서 유대감을 느꼈어요. 각자의 몸을 갖고 정진해나가는 전체의 풍경이 흔치 않은 일이면서도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익명 : 미술관 입장에서도 미술관에서 이렇게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고민되기도 했지만,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과 궁금증이 컸어요. 이 워크숍은 다 같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마음으로 벌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매주 월요일마다 돌아오던, 이상하고 낯설었던 워크숍이 끝났다. 유독 비가 많이 왔던 8월. 나중에 여름비가 내리는 날이면 서로에 대해 아는 것 없이 모여 그로울링 하나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던, 이 기묘한 모임이 생각날 것 같다. 나는 그저 숨어서 지켜

보며 무언가 적거나, 때로 다른 사람의 그로울링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게 으르렁대보았을 뿐인데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곤 별 말 없이 정중하게 나를 안아주었다. 그 두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은 모를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도 그들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둘 중 한 사람은 노래를 불러 주겠다고 했다. 여기서 늘 낮은 소리만 냈는데 높은 소리도 내 보고 싶다며. 노을이라는 노래를 아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했더니, 들어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 입은 가을 언덕에
빨강계 노을이 타고 있어요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초가지붕 등근 박 꿈 꿀 때
고개 숙인 논밭의 열매
노랑계 익어만 가는
가을바람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 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타는 저녁 놀.

태풍 온 날, 미술관의 어둡한 지하에서. 이름 모를 낯선 이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었다. 하나 둘씩 어둠 속에서 일어나와 으르렁거리곤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어디선가 마주친다면 어쩐지 인사를 건네지는 않을 것 같다. 나도 주워들어 배운 대로 작게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러면 화답하는 그로울링이 들려올 지도 모른다.

〈여름, 어둠, 으르렁거리기〉는

'그로울링 워크숍' 현장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그로울링 워크숍

2022.08.08.-09.05.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기획 : 물물 (노은주, 문세린, 한승우)

진행 : 최원경, 장정우, 김윤기, 물물

글 기록 : 정소영

영상기록 : 이소의, 이희인

사진기록 : 이소의, 이의록

도움

유한나, 허태영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김수빈 (서울문화재단)

후원 : 서울문화재단

협력: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